



사람과 사람

케이크 상자에 담아낸 열정

양지디자인포장 실장 김수진

제과 포장 전문 업체인 양지디자인포장(대표 김철환)에는 열성과 우먼파워가 있다. 바로 양지디자인포장의 디자인 분야와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수진(31)씨. 지금은 양지디자인포장에서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테리어 분야에서 밤낮을 잇고 일하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를 설득한 것은 아버지인 양지디자인포장 대표 김철환씨. 아버지는 인테리어 분야에 쏟아 붓는 딸의 열정을 제과용 포장에 쏟아주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김수진씨는 디자이너로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제과 포장을 디자인하는 것은 인테리어와는 또 다른 생소한 분야였다. 때문에 도안 작업을 비롯한 기초적인 업무를 배우고 공장과 제과점을 오가며 6년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무슨 일이든 열성적으로 하는 그녀였지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비단 낯선 일을 한다는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직원으로서의 책임감에 사장 딸로서의 책임감이 더해져 조금만 실수해도 곱절로 질책을 받아야 했고 일에 대한 부담감도 그만큼 컸다.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신경을 써야했다. 그러나 고객이 제품을 만족해할 때는 그동안의 노곤함을 잊고 다시금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김수진씨는 “고객의 칭찬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더 재미있어졌고 지금까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수진씨가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점은 포장재의 위생성을 갖추는 일.

“제과 포장은 먹는 것을 포장하는 것이므로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생적인 측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 Q마크를 받은 위생지를 케이크가 닿는 안쪽 부분뿐 아니라 겉면까지 사용한 케이크 상자를 제작,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김수진씨는 고객들이 포장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포장 제품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기 점포만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포장이 기성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아 막상 실천에 옮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위해 기성 제품과 맞춤형 제품을 결합하는 형태를 늘리고 기성품도 저렴한 가격대부터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큰 부담 없이 각 점포가 고유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앞으로 포장 때문에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 업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 노력하는 그녀 모습에서 그 바람도 머지않아 이뤄지리라 기대된다.

〈취재·김영주 / 사진·박성일〉